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성경: 열왕기상 19장 9-18절

Tag: christian life,기독교인의 삶

9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
기 있느냐

10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유
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었으며 오직 나만 남
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
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
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 엘리야가 듣고 걸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때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
여 여기 있느냐

14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유
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었으며 오직 나만 남
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
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왕상19:9-18)

*엘리야-엘리사 시대의 신학적 특징을 이해하면 유익하다.

-기적의 시대, 영감의 시대. (축지법/하늘에서 불이 내림/까마귀가 먹을 것을 배달/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함/끓임없이 나오는 기름병/나병환자 4명이 아람군대를 도망가게 함)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다.

-당시의 영감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를 뜻한다.

-계시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계시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당한다.

-당시의 계시는 대개는 기적을 동반하였고, 기적은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검증하였다.

-계시로 인한 기적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면서(증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엘리야는 계시와 기적을 이용해서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연출능력이 탁월하였다. 한마디로 계시활용의 대가인 셈이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적으로 연출하는 감독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모세가 아니었다.(비슷했지만) 그는 결코 통치자가 아니었다.(모세처럼; 왜냐면 시대가 바뀌었고 엘리야는 왕정시대에 살고 있었기에. 통치는 왕들에게 맡겨진 시대였다.-사무엘이 과도기 시대에 살았다.)

-엘리야는 기적 연출의 효과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점이 엘리야에게 정체성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당시에 하나님은 계시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멸망의 사람을 구별하는 도구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해 심판의 그릇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시고, 채워지는 순간 심판의 잔을 부으셨다.

*기적의 가치는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는 자에게 기적의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적이 의미 있는 사건이요 복된 사건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요행히 심판을 피하면 다행이고 피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다.

-왜냐면 그들에게 기적은 요술에 능한자의 능력에 불과하다. 즉 대결에서 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피하도록 하신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

-당시 엘리야는 아합왕과 이세벨의 죄악으로 인해서 3년6개월간의 가뭄에 관한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였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세기의 대결을 연출하였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아합왕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심판으로 받았다.

-왜냐면 왕비 이세벨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야는 정체성 혼란에 빠진다. 그는 스스로

에게 물었다. 이제 자신이 죽임을 당하면 이 사명을 이어받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급하게 몸을 숨기기 위해서 호렘산으로 향한다. 호렘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산이다.

-이 시기가 엘리야에게 있어서 정체성 혼란의 시기이고 새로운 신학의 탄생을 위한 산고의 기간이었다.

-그는 깊은 굴속에 들어가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만나 주셨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

-엘리야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기적 가운데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기적은 기적으로서의 기능이 있을 뿐이라는 점을 깨닫는다. 선지자가 기적을 통해서 통치하지는 않는다.

-엘리야는 후계자를 세우는 사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일꾼을 지명하여 기름을 붓는 사명이다.

-후일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반장으로 선지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후일에 엘리사는 특이하게 선지자로서 군대의 역할을 감당한다.(군사; 왕을 도와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됨.)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칠천명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하다.

1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정체성 혼란에 빠진 이유는 오직 자기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10(14)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

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
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어 정체성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딱 한가지만 알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된다.

-내가 몰랐던 딱 한가지. (그것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칠천이라고 하셨다. 칠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수를 말하고, 천이라는 숫자는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 전부를 의미한다. 즉 너 혼자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성경에 등장하거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뜻이고 오늘날에도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그 중 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계신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